

‘자다’류 동사의 통시적 변천에 대한 고찰

유현아*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자다’류 동사의 통시적 의미 변천 고찰
 - 1) ‘睡’의 의미 변천
 - 2) ‘寢’의 의미 변천
 - 3) ‘寐’의 의미 변천
 - 4) ‘臥’의 의미 변천
 - 5) ‘眠’의 의미 변천
3. ‘자다’류 동사의 차이점 분석
 - 1) 수면 상태와 방식의 차이점 분석
 - 2) ‘자다’류 동사의 통시적 의미 변천의 유형 분석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明代의 학자 楊慎은 ‘凡觀一代書, 須曉一代語; 觀一方書, 須通一方之言’(무릇 한 시대의 책을 보려면 그 시대의 말을 알아야 하고, 한 지역의 책을 보려면 그 지역의 말에 통달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시대와 지역이 다르면 어휘의 함의와 용법 역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주지하다시피, 각 시대별로 보면 당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단어들도 대량 생산되고, 이와 동시에 무수한 단어들도 생명력을 잃고 도태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는 當

* 경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王云路, 『中古常用詞研究漫談』, 『詞彙訓詁論稿』,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2년, 234쪽.

代 사회의 어휘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의미는 그 시대의 어휘에 내포된 의미와 표현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왔다.

오랜 세월동안 주류의 자리에 있었던 중국의 전통언어학인 訓詁學에서는 고문헌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어휘의 풀이에 주목한 반면, 의미가 쉽게 파악되는 상용어에 대해서는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 연구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강한 생명력을 보이며 가장 오래 사용되는 어휘는 신조어나 어려운 어휘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常用語이다.

常用語는 當代 사회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집합체로서, 어휘체계의 핵심이면서 언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신조어를 생성함에 있어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또한 그 字面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인류의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어휘이므로 변화가 거의 없다. 즉 시대의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어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용어에 변화가 생기면, 이것이 어휘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하겠다.³⁾ 즉, 상용어의 변화는 어휘체계 전체에 근본적인 심층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용어는 중국어 어휘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으로서 만약 상용어의 발전변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한 시기 내의 어휘현상을 살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 간의 어휘의 변화 과정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국어 어휘의 체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어휘의 의미 변천 과정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주변의 의미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므로, 이 과정에서 크게는 의미장의 변화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⁴⁾

2) 汪維輝, 『東漢-隋常用詞演變研究』,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0년, 11-12쪽.

3) 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9년, 2-3쪽.

4) 方金華, 「從古今睡眠方式的變化看漢語詞義系統的動態平衡」, 『台州學院學報』第 1期, 2012년, 15쪽.

본 연구에서는 常用動詞 중에서 '자다'의 의미에서 유의어 관계를 형성하는 '睡', '寐', '臥', '寢', '眠' 5개 동사를 추출하여 5개 동사의 각 시대별 사용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 동사들의 수면 상태와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각 동사의 특징을 귀납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자다'류 동사들의 통시적 변천과정의 특징 및 시기별 대표 어휘 즉 핵심동사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예문 자료는 北京大學의 中國言語學研究中心 古代/現代漢語 語料庫 (<http://ccl.pku.edu.cn>)와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에서 추출하였다.

2. '자다'류 동사의 통시적 의미 변천 고찰

'자다'의 사전적 정의는 '생리적인 요구에 따라 눈이 감기면서 한동안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자다'류 동사의 개념을 '瞌睡'(생리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졸음이 몰려오는 상태) - '睡覺'(수면상태에 진입하는 상태; 구체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자는 행위동작만을 뜻함) - '睡着'(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 '睡醒'(수면상태가 끝나고 의식이 깨어나는 상태)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⁵⁾, 이 네 가지의 개념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 번의 수면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수면과정에서 속하는 개념 중에서 '수면상태'의 시작과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가 유의관계를 형성하는 동사들과 잠에서 깨어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유의어군이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 유의어 연구는 단어가 아닌 의미항목을 기본단위로 삼기 때문에 '자다'의 의미항목에서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과 '잠깨다'의 의미항목에서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⁶⁾ 본 연구는 '자다'의 의미에서 유의어군을 형성하는 동사들에 대한 연구이므로, '수면상태'의 시작과 진행을 나타내는 '瞌睡'-'睡覺'-'睡着'의 의미에서 유의관계

5) 劉新春, 「睡覺類動詞的歷史演變研究」,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2~3쪽

6) 유현아, 「征, 伐, 侵, 襲, 討의 의미특징 비교」,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384~385쪽.

를 이루는 동사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전제에 해당하는 분석대상 동사는 ‘睡’, ‘寐’, ‘臥’, ‘寢’, ‘眠’이다.

중국어사에서 ‘자다’의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는 시기별로 의미는 비슷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다’의 의미항목에서 유의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고, 각각의 동사 또한 서로 다른 역사시기에 일정 정도의 교차 상황 및 평행 발전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상고시기에 ‘자다’의 뜻으로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는 ‘寢’, ‘寐’이고, 중고시기의 상용어는 ‘眠’과 ‘臥’, 근대시기에는 ‘睡’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자다’류 동사들의 시기별 용례 분석을 통해 이 유의어군의 의미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睡’의 의미 변천

‘睡’는『說文』에 ‘坐寐也, 從目, 垂.’(앉아서 자다의 뜻이고,目과垂의 뜻을 따랐다)라고 풀이하였고,徐鍇는 ‘從目, 垂聲.’(뜻은目, 소리는垂를 따른다)라 하였다. 앉아서 잔다는 것은 ‘졸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허신은 ‘睡’를 회의자로 본 반면, 서개는 형성자라고 보았다. 후에 段玉裁가 ‘知爲坐寐者, 以其字從垂也……此以會意包形聲.’(앉아서 조는 것으로 그 글자는 ‘垂’를 따른다. 회의 겸 형성자이다)이라 주해하며, 회의 겸 형성자인 ‘睡’는 ‘垂’에서 유래하였다고 두 설을 정리하였다. 즉 ‘睡’는 머리를 아래로 떨구고 잠든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본래의 미는 ‘앉은 채로 졸다’이고, 후에 본래의미에서 ‘자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①景公畋于梧丘, 夜猶早, 公姑坐睡.(『晏子春秋·內篇雜下』)

(경공이 길가의 언덕배기에 사냥을 갔다. 밤이 아직 이른데 공이 잠시 앉은 채로 졸았다.)

②讀書欲睡, 引錐自刺其股, 血流至足.(『戰國策·秦一』)

(책을 읽다가 졸리면, 송곳을 끌어당겨 자기 넓적다리를 스스로 찔러서 피가 발까지 흘러 내렸다.)

③孝公既見衛鞅, 語事良久, 孝公時時睡, 弗聽.(『史記·商君列傳』)

(효공이 위나라의 공승앙을 만나 한참동안 나라 일을 이야기했는데 효

공이 때때로 졸면서 듣지 않았다.)

④寬嘗于坐被酒睡伏. (『後漢書·卓魯魏劉列傳』)

(일찍이 유관이 술에 취해서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았다.)

⑤童子莫對, 垂頭而睡. (『秋聲賦』)

(동자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졸았다.)

예문 ①~⑤의 '睡'는 모두 본래의미인 '졸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문 ①과 ②는 선진시기의 용례이고, ③은 兩漢시기에 상용동사로 사용된 예이며, ④는 魏晉시기의 용례이다. 예문 ⑤는 宋代 구양수의 추성부에 나온 용례이다. 魏晉시기 이후로 '睡'가 본래의미로 사용된 예는 많지 않으나 대략 宋代까지는 본래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 (『莊子·列禦寇』)

(그대가 구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 용이 잠들었던 틈을 탔기 때문일 것이다.)

⑦睡不解衣冠. (『前漢紀·孝文皇帝紀上』)

(자는데 의관을 벗지 않았다.)

⑧伺其睡, 陰解其衣, 有尾長三尺, 似狐尾. (『洛陽伽藍記·法雲寺』)

(처가 잠든 것을 보고 몰래 그 옷을 벗겼는데, 세 자가 되는 꼬리가 있는 것이 여우의 꼬리 같았다.)

⑨太子不樂, 坐至三更, 五百宮人, 悉皆得睡. (『祖堂集卷第一』)

(태자는 즐거워하지 않고, 앉은 채로 삼경까지 있었다. 오백 궁인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⑩只恐夜深花睡去, 故燒高燭照紅妝. (『海棠』)

(밤 깊어 꽃 잠들어 떨어질까 두려워, 촛불 높이 들어 해당화 꽃잎 비취 보네.)

⑪與本婦宿睡, 至二更時分回還. (『元典章刑部』)

(본부인과 하룻밤 자고 이경 무렵에 돌아왔다.)

⑫清天白日, 却怎的這等酣睡. (『兒女英雄傳首卷』)

(환히 밝은 대낮에 어찌 이렇게 깊이 자는가?)

⑬我要回屋子睡覺去了. (『老殘遊記第十三回』)

(나는 집에 자리 가야겠다.)

⑭我現在一天睡四个半小時, 余下的時間几乎都是在工作.

(나는 요즘 하루에 4시간 반을 자고, 남은 시간은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다.)

예문 ⑥~⑬은 '睡'가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예문 ⑥은 先秦시기의 용례로, 이를 통해 파생의미 '자다'가 이미 선진시기에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진시기에 '睡'의 본래의미와 파생의미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문 ⑦은 양한시기의 용례이고, ⑧은 魏晉시기에 사용된 예, ⑨는 隋唐時期를 대표하는 용례이며, ⑩과 ⑪은 宋元시기의 용례, 예문 ⑫와 ⑬은 明清시기의 용례이다.⁷⁾

이상의 용례 분석을 통해, '睡'의 파생의미는 선진시기에 이미 출현하여 일정기간 본래의미와 함께 공존하다가, 이후 본래의미는 소실되고 파생의미가 '睡'의 통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의미는 魏晉南北朝시기까지 사용되다가 대략 宋代부터 소실되기 시작했으나, 사실 唐代 이후에는 대부분 파생의미인 '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 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현대중국어에서의 '睡'는 '자다'의 의미로 쓰이면서, 현대중국어 '자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2) '寢'의 의미 변천

'寢'의 갑골문 字形은 '宀'로, '宀'과 '帚'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說文』에도 '臥也. 從宀, 帚聲.'(눕다의 뜻이고, 뜻은 宀, 음은 帚를 따른다)라 하였다. 본디 집 안에 빗자루가 놓여 있는 형태를 본떠 만들어진 한자이므로, 이를 통해 당시의 주거문화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북방지역은 구들을 사용하던 지역으로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부자리를 펴고 잤고, 그러다 보니 자기 전에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는 습관이 있었다. '寢'자는 바로 이러한 문화를 반영하여 造字된 것이고, 造字 당시의 의미를 반영하여 비교적 엄밀하게 의미를 따지면, '寢은 수면과정 중에 '잠들기 전의 단계로 온 몸을 편하게 하고 자려고 누워 있는 동작으로 잠이 들었는

7) 이 밖에도 “那些朋友們和我賭賽, 叫我睡在街心裏.”(『儒林外史第12回』)(그 친구들과 나는 내기를 했고, 나에게 길바닥에 누우라고 했다)의 용례에서와 같이 '睡'에는 '눕다'의 뜻이 있다. 이 의미항목은 '자다'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다'의 의미항목에서 유의어 관계를 형성하는 동사들의 통시적 변천 및 의미장 변화에 대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다'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항목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⁸⁾ 그러므로 '寢'의 본래의미는 '눅다'이고, 이로부터 점차 '자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자다'라는 의미에서 '寢'의 특징을 개괄하면 잠들었는지와 관계없이 단지 자는 행위동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⑮ 乃寢乃興, 乃占我夢. (『詩·小雅·斯干』)
(자고 일어나 내 꿈을 점쳐 보네.)
- ⑯ 宰予晝寢. (『論語·公冶長』)
(재여가 낮에 잤다.)
- ⑰ 食不言, 寢不語. (『論語·鄉黨』)
(먹을 때는 말하지 않고, 잘 때도 말하지 않는다.)
- ⑱ 簡子見之, 若寢夢矣. (『論衡·本性』)
(간자가 보니 마치 자다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 ⑲ 寢不安席, 食不甘味. (『出師表』)
(자도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먹어도 맛이 달지 않았습니다.)
- ⑳ 夜深衆僧寢, 獨起繞池行. (『東林寺白蓮』)
(깊은 밤 못 스님들이 잠 들었는데, 홀로 일어나 연못을 둘러보네.)
- ㉑ 門者曰, 王寢, 不可以開. (『景德傳燈錄卷一』)
(문지기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무시니 아될 수가 없습니다.)
- ㉒ 昨夜雖然是個死屍, 已與他同寢半夜, 也難另嫁別人了. (『初刻拍案驚奇卷九』)
(어젯밤에 비록 죽은 시신이었으나 이미 그와 야심한 밤까지 동침하였으니,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도 어렵습니다.)
- ㉓ 二人因明日起早, 便也就寢. (『兒女英雄傳第24卷』)
(두 사람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취침하였다.)

예문 ⑮~⑰은 先秦시기의 용례이고, ⑱은 兩漢시기에 사용된 예문이다. 예문 ⑲는 三國魏晉時기에 사용되었으며, ⑳은 唐代의 용례, ㉑은 宋代, ㉒와 ㉓은 明清시기의 용례이다. 특히 예문 ㉓을 통해서 청대에 '寢'이 어휘의 변화과정에서 단음절어가 이음절어로 변화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아 이음절어 '就寢'의 형태로 '잠자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는 '寢'의 단음

8) 王力은 '寢'을 잠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잠들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았다. 王力, 『古代漢語』 第3冊, 北京, 中華書局, 1995, 805쪽.

절어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寢具’, ‘寢室’ 등과 같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형태소로서의 역할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용례 분석을 통해, ‘寢’의 ‘자다’의 뜻은 선진시기에 본래 의미인 ‘눅다’에서 파생되어⁹⁾ 대부분의 시기에 본래의미와 함께 사용되었고, 이후 明清 시기에 본래의미가 사라지고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으로 사용되다가 현대중국어에서는 형태소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寐’의 의미 변천

『說文』에 ‘寐, 臥也. 從寢省, 未聲.’(寐는 臥의 뜻이다. 뜻은 寢을 따르나 의 寢의 형체 중 일부가 생략되었고, 음은 未를 따른다)이라고 하였는데, ‘臥’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段玉裁는 ‘俗所謂睡着也.’(세속에서는 이른바 잠들다라고 한다)라 풀이하였다. 또한 『說文通訓定聲』에서는 ‘合目曰眠, 眠而無知曰寐’(눈을 감는 것을 眠이라 하고, 눈 감고 지각이 없는 것을 寐라고 한다), 慧琳의 『一切經音義』에는 ‘寐, 謂眠熟也.’(寐는 깊이 잠든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였으니¹⁰⁾ 『說文』의 ‘臥’는 ‘눅다’가 아닌 ‘잠자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寐’는 ‘잠들어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寐’의 본래의미는 ‘잠들다’이다.

㉘窈窕淑女, 寤寐求之.(『詩·周南·關雎』)

(요조숙녀를 자나 깨나 구하네.)

㉙其寐也神交, 其覺也形開.(『莊子·齊物論』)

(잠잘 때는 정신과 혼이 교제하지만, 깨어나면 몸이 맑아진다.)

㉚今吾憂之, 夜而忘寐, 飢而忘食.(『史記·趙世家第13』)

(지금 나는 이것을 근심하여 밤에는 자는 것을 잊고, 배고파도 먹는 것을 잊는다.)

9) 王政白은 ‘寢’의 본래의미를 ‘침대에서 자다’ 또는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다’로 보고, 이로부터 ‘눅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갑골문과 설문의 자형풀이에 근거하여 그의 의미 변천과정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王政白, 『古漢語同義詞辨析』, 合肥, 黃山書社, 1992, 275~278쪽.

10) 王政白, 『古漢語同義詞辨析』, 合肥, 黃山書社, 1992, 276쪽.

- ㉗寤寐慨然, 自忘守文之不德焉.(『三國志卷一』)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함을 잊은 부덕함을 자나 깨나 분하고 슬
퍼했다.)
- ㉘秋夜長, 夜長無寐天不明.(『上陽白髮人』)
(가을 밤 길기도 하네, 밤은 길어 잠은 안 오는데 날은 밝아오지를 않
네.)
- ㉙宵耿介而不寐.(『藝文類聚·歲時上·秋』)
(밤에 마음이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는다.)
- ㉚夢寐亦或有之, 以此知萬事無不前定(『夢溪筆談·神奇』)
(잠을 자면서 꿈을 꾸어도 혹시 앞으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로써
만사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 ㉛一夜不寐, 坐在花下存想.(『醒世恒言第4卷』)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꽃 아래 앉아서 생각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붙
들어 둔다.)

예문 ㉔~㉖은 선진양한시기의 용례이고, ㉗은 위진남북조의 용례, ㉘과 ㉙는 唐代的 용례, 예문 ㉚은 宋代, ㉛은 明代的 용례이다. 현대중국어에서 '寐'는 여전히 '잠들다'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寢'과 마찬가지로 단어가 아닌 다른 형태소와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소로서의 역할로 존재할 뿐이다.

위의 용례 분석을 통해, '寐'의 본래의미인 '자다'는 선진시기부터 명청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현대중국어에서는 고대중국어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형태소로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寐'는 고대 중국어에서 '不' 또는 '假'와 連用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不寐'의 경우 위의 예문에서 살펴봤듯이 '누워서 잠들지 못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假寐'의 경우는 『詩·小雅·小弁』의 '假寐永嘆, 維憂用老'(누워서 자는 등 마는 등 길게 탄식하며, 걱정으로 늙어가네)에 대해 鄭玄은 '不脫冠衣而寐曰假寐'(의관을 벗지않고 자는 것을 가매라 한다)고 주석하였고, 『聊齋志異』에서의 용례를 보면 '乃悟前狼假寐, 蓋以誘敵.'(앞에 있는 이리가 자는 척하는데, 아마도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이라 하여 '자는 척 하다'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용례를 분석하여 종합하면, '假寐'는 '옷을 입은 채로 졸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선진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假寐'

의 경우 임시 조합이 아닌 단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4) '臥'의 의미 변천

『說文』에 '臥, 休也. 從人臣, 取其伏也.'(臥는 쉬다의 뜻이다. 人과 臣의 뜻을 취한 회의자이다.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취한 것이다)라 하였는데, 段玉裁는 '臥, 伏也.'(臥는 엎드리다의 뜻이다)라고 풀이하고, '伏, 大徐作休, 誤. 臥與寢異, 寢於床……臥于几, 孟子隱几而臥是也, 臥于几, 故曰伏.'(伏의 뜻인데, 大徐本에 休라고 되어 있으니 잘못된 것이다. 臥는 寢과 다르다. 寢은 침상에서 자는 것이다. 맹자에 책상에 기대어 엎드린다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책상에서 엎드리므로, 그래서 '伏'이라고 하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서본과 소서본의 '臥'에 대한 뜻풀이가 '伏'과 '休'로 각각 다른데, 단옥재는 논어와 맹자의 용례를 들어 설명하고 '伏'의 자형에 대해서도 '머리를 붙이고 등을 구부린 형태'를 본뜬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단옥재의 설명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신빙성 또한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형풀이만으로는 쉬는 것인지 자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臥'의 본래의미는 '나지막한 책상에 엎드려 쉬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그런데 허신의 자형풀이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허신은 從人臣(사람과 신하의 뜻을 따르다)이라고 하여 '臥'를 회의자로 보았는데, 楊樹達은『積微居小學述林』에서 '古文臣與目同形, 臥當從人從目. 蓋人當寢臥, 身體官骸與覺時皆無別異, 所異者獨目爾: 覺時目張, 臥時則目合也.'(고문 臣과 目은 동형이다. 臥는 人과 目의 뜻을 취했다. 사람이 누워있거나 잘 때, 신체기관은 깨어있을 때와 차이가 없고 다른 것은 오직 눈뿐이다. 깨어있을 때는 눈을 뜨고, 잘 때는 눈을 감는다)라고 하여 '臣'이 눈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았다.¹¹⁾ 즉 '臥'는 신하의 '臣'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허신의 자형 풀이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로부터 보건대, '臥'는 선진 시기에 이미 '자다'와 '쉬다'의 뜻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쉬다'와 '자다'의 외재적 표현 형식은 눈을 뜨고 있는지와 눈을 감고 있는지의 차이이므로 의미

11) 劉新春, 「睡覺類動詞的歷史演變研究」,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9쪽.

파생의 내재적 함의 변천과정의 각도에서 본다면 '엎드려 쉬다'에서 '엎드려 자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臥'는 본래의미인 '엎드려 쉬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졸다 또는 자다'의 의미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 ②有欲爲王留行者，坐而言，不應，隱几而臥。(『孟子·公孫丑下』)
(어떤 이가 왕을 위해서 맹자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고자 앉아서 말했다. 맹자가 응대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쉬었다.)
- ③心臥則夢。(『荀子·解蔽』)
(마음은 잠이 들면 꿈을 꾸다.)
- ④今上欲易太子，君安得高枕而臥乎？(『史記·留侯世家第二十五』)
(지금 황상께서 태자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 있소?)
- ⑤雖臥洛陽，庸得安枕乎？(『後漢書卷三十六』)
(비록 낙양에서 잔다한들 어찌 편안하게 베개를 벨 수 있겠는가?)
- ⑥今宵獨臥，實怨更長。(『遊仙窟』)
(오늘밤은 혼자 자니, 실로 밤이 더 긴듯하여 원망스럽네.)
- ⑦臥江海之瀕洞，吊鼓角之淒悲。(『和歸去來兮辭』)
(강해의 아득하고 길게 이어진 풍경에서 잠드네, 걸려 있는 북과 피리가 처량하고 슬프네.)
- ⑧時已夜深，乃就竹榻上施衾褥，命程在此宿臥。(『初刻拍案驚奇卷四』)
(때는 이미 밤이 깊어 대나무 침상 위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程에게 여기에서 하룻밤 자라고 했다.)

예문 ②의 '臥'는 본래의미인 '책상에 엎드려 쉬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⑧은 모두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③은 선진시기의 용례로, 선진시기에 이미 '臥'에 파생의미가 출현하여 본래의미와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와 ⑤는 양한 시기의 용례이고, ⑥은 唐代의 용례, ⑦은 宋代, ⑧明代의 용례이다.

이상의 용례 분석을 종합하면, '臥'의 '자다'의 뜻은 선진시기에 본래 의미인 '쉬다'에서 파생되어 일정기간 병용되었으나, 이후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략 중고시기부터 '자다'의 뜻에서 파생된 '눅다'의 의미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며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 추세가 반영되어 현대중국

어에서는 ‘자다’의 의미항목이 사라지고 ‘눅다’의 의미항목만 남아있게 되었으며, ‘寐’, ‘寢’과 마찬가지로 단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형태소로만 사용되고 있다.

5) ‘眠’의 의미 변천

『玉篇』에 ‘眠, 同瞑.’(眠은 瞑과 같다)라 하였으니, ‘眠’은 ‘瞑’과 同源임을 알 수 있다. ‘眠’은 ‘瞑’의 俗字로, 최초에는 ‘瞑’으로 썼으므로 『說文』에도 ‘瞑’자에 대한 풀이만 있다. ‘瞑’은 『說文』에 ‘翁目也. 從目冥.’(瞑은 ‘눈을 감다’의 뜻이다. 目과 冥의 뜻을 취했다)라 하여, ‘瞑’의 본래의미가 ‘눈을 감다’임을 알 수 있다. 눈을 감고 있다하여 모두 자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에는 ‘자다’의 뜻과 관계가 없었으나,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잠이 들 수도 있고, 또 잠을 잘 때에는 반드시 눈을 감기 때문에 본래의미에서 ‘자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㉓ 乃瞑. 受含. (『左傳·襄公19年』)

(이에 눈을 감고, 함을 받았다.)

㉔ 有獸焉, 其狀如兔而鳥喙……見人則眠. (『山海經·東山經』)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형상은 토끼 같으면서 새의 부리를 하고 있고……사람을 보면 눈을 감고 죽은 척 했다.)

㉕ 其民不食不衣而多眠. (『列子·周穆王』)

(그 백성들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잠을 많이 잤다.)

㉖ 邊孝先, 腹便便, 懶讀書, 但欲眠. (『漢書卷八十』)

(변효선은 배가 뚱뚱하여 책 읽기는 귀찮아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

㉗ 先主與雲同床眠臥. (『蜀書』)

(선주는 조운과 한 침상에 누워 잠을 잘 정도였다.)

㉘ 昔日雙眠, 恒嫌夜短. (『遊仙窟』)

(어제는 함께 자며 밤이 짧다고 원망했네.)

㉙ 神宮有英泉, 飲之, 眠三百歲, 乃覺. (『藝文類聚卷九·水部下·泉』)

(신궁에 영천이 있어 이를 마시면 삼백년을 자고나서 깨어난다.)

㉚ 掙扎起來, 半眠半坐, 日漸健旺. (『醒世恒言第8卷』)

(힘써 버티면서 반은 자고 반은 앉아 있었는데 날로 점차 건강해졌다.)

예문㉓는 본래의미인 ‘눈을 감다’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㉔은 본래의미에서 파

생된 '눈을 감고 죽은 척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예문 ④~⑥은 파생의미 '자다'의 뜻으로 사용된 예이다. ④과 ⑤는 先秦兩漢시기의 용례이고, ⑥은 魏晉南北朝시기, ④와 ⑤는 唐代, ⑥은 明代의 용례이다.

이상의 용례 분석을 종합하면, '瞑'의 俗字인 '眠'의 '자다'의 뜻은 선진시기에 본래 의미인 '눈을 감다'에서 파생되었다. '眠'은 대략 晉代부터 출현회수가 급증하면서 '자다'류 동사 중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특히 남북조 후기에는 출현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¹²⁾ 이러한 경향은 현대중국어로 이어져, 현대중국어에서는 '眠'의 본래의미가 소실되고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이 주요 의미항목이 되었다.

3. '자다'류 동사의 차이점 분석

유의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차이점을 변석하는 것이다. 언어의 경계성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대부분의 유의어는 '同中有異'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동일한 概念義에도 개념의 내함과 외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의어 관계에 있는 대상이 동사일 경우에는 개념의가 같으면서도 외연의 범위나 동작행위 본연의 방식이나 상태 등에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¹³⁾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다'류 동사들의 수면 상태와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각 동사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고찰하고, 아울러 '자다'류 동사들의 통시적 변천과정의 유형 분석 및 시기별 핵심동사의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면 상태와 방식의 차이점 분석

12) 汪維輝, 『東漢-隋常用詞演變研究』,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0년, 150쪽.

13) 유현아, 『征, 伐, 侵, 襲, 討의 의미특성 비교』,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386쪽.

‘자다’류 동사는 수면의 상태와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수면상태와 방식에 따라 대표되는 동사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수면 상태에 의해 분류하면, ‘瞌睡’ - ‘睡覺’ - ‘睡着’의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상태별로 대표되어지는 동사가 다르다.¹⁴⁾

첫 번째는 瞌睡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상태를 대표하는 동사는 ‘睡’이다. ‘졸다’는 ‘睡’의 본래의미로 선진시기부터 대략 宋代까지 사용되었다. 그런데 사실 魏晉시기 이후부터 宋代까지 본래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많지 않고, 특히 魏晉시기 이후로는 단어가 아닌 임시 조합인 詞組의 형태 ‘坐寐’로 출현하여 ‘졸다’의 의미를 대체하였다. 이후 五代시기부터 이음절어 ‘瞌睡’가 출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後蜀시기 歐陽炯의 『貫休應夢羅漢畫歌』에 사용된 ‘瞌睡山童疑有夢’(꾸벅꾸벅 졸고 있는 동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이 이음절어 ‘瞌睡’의 대표적 용례이다. 현대중국어에서 ‘졸다’의 뜻을 나타내는 상용동사로는 ‘瞌睡’이외에 ‘打瞌睡’, ‘打盹’¹⁵⁾도 있다.

두 번째는 ‘睡覺’의 상태로, 이것은 잠들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다’와 관계 있는 동작행위만을 나타낸다. 이를 대표하는 동사는 ‘寢’과 ‘臥’, ‘眠’, ‘睡’이다. 상고 시기에 가장 자주 사용된 동사는 ‘寢’이고, 漢 이후에는 ‘臥’와 ‘眠’이 주로 사용되었고, 현대중국어에서는 ‘睡’가 이 개념을 대표한다.

세 번째는 ‘睡着’의 상태이고, 상고에 이 개념을 대표하며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는 ‘寐’이다. 이후 ‘臥’, ‘眠’, ‘睡’도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출현빈도수가 많지는 않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수면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는 없고, 詞組인 ‘睡着’로 대체되었다.

다음으로 수면 방식에 의해 분류하면, 앉아서 자는 방식, 엎드려서 자는 방식, 그리고 누워서 자는 방식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수면 방식의 차이는 당시의 침구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당시의 침구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4) 2절에서 밝혔듯이, ‘瞌睡’ - ‘睡覺’ - ‘睡着’ - ‘睡醒’을 한 번의 수면과정으로 보는데, 본 연구는 ‘자다’류 동사에 대한 연구이므로 ‘잠이 깨어 의식을 회복하는 상태’인 ‘잠깨다’의 과정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15) ‘打盹’은 元代에 출현하여 현재까지 ‘졸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元代의 『黃鶴樓第一摺』의 ‘正在灶窩里打盹.’에 사용된 ‘打盹’이 대표적 용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앉아서 자는 방식은 수면상태의 분류 중 '瞌睡'의 상태에 해당한다. 앉아서 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구 없이 앉아서 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다섯 동사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睡'이다.

둘째, 엎드려서 자는 방식에 해당하는 동사는 '臥'이다. 다만 '臥'의 본래의미는 '책상에 엎드려 쉬다'이므로, 엎드려 쉬다 보면 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엎드려서 졸다 또는 자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禮記·樂記』의 '吾端冕而聽古樂則唯恐臥.'(내가 조희 때의 의관을 정제하고 옛 음악을 들으면 졸릴까 봐 걱정된다)에서 사용된 '臥'가 바로 '엎드려 졸다 또는 자다'의 뜻이다. 이 용례에서는 엎드릴 수 있는 침구가 생략되어 있지만, 앞서 2절에서 제시한 용례 '隱几而臥'에 대해 焦循과 斷玉裁 모두 '臥與寢異, 寢於床, 臥於几'라 풀이하였으므로, '臥'의 동작행위에는 '几'라는 침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几'는 先秦시기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침구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자리를 깔고 앉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무릎 앞에 높이가 나지막한 책상을 두고 피곤하면 기대는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几'에는 베개를 둘 수도 있었던 듯하다.¹⁶⁾ 위의 예문 ㉔의 高枕而臥와 ㉕雖臥洛陽, 庸得安枕乎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최초에는 几 위에 베개를 놓고 엎드려서 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臥'의 침구는 높이가 낮은 책상 '几'와 베개 '枕'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의 용례들을 보면 '几'에서 '枕'은 선택 사항으로 반드시 '枕'을 사용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셋째, 누워서 자는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는 본 연구의 대상인 '寢', '寐', '眠', '睡', '臥' 모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진시기에는 땅바닥에 자리(席子)를 깔고 앉는 문화가 있었으므로, 자리, 침대, 几와 같은 가구들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누워서 잔다는 것은 몸을 쪽 펴고 눕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때 필요한 침구는 '자리' 또는 '침대'이다. 『史記·孫子吳起列傳』의 '起之爲將, 與士卒最下者同衣食. 臥不設席, 行不騎乘, 親裹贏糧, 與士卒分勞苦.'(吳起는 장수가 되자 사졸 중에서 가장 낮은 자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다. 누워

16) 方金華, 「從古今睡眠方式的變化看漢語詞義系統的動態平衡」, 『台州學院學報』第1期, 2012년, 16~17쪽.

서는 자리를 깔지 않았고, 행군할 때는 말에 오르지 않았으며, 친히 식량을 싸가지고 다녔으며 사졸과 함께 수고로움을 나누었다)에서 당시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분디 자리(席子)를 깔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자리(席子)의 용도는 바로 사람들이 땅바닥 또는 침대 위에 깔고 앉거나 누워 자는데 사용했던 침구인 것이다.¹⁷⁾ 그러나 후에 자리를 깔고 바닥에 앉는 풍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주요 침구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누워서 몸을 펴고 누울 수 있는 중요한 침구인 침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침구로서 중시되고 있다. 특히 ‘寢於床’의 풀이를 통해 침대의 용도가 잠을 자는데 사용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동사 중에서 명확하게 침대를 사용하여 누워 자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는 ‘寢’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동사들 중에서 침구를 사용하여 누워 자는 방식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동사는 ‘臥’와 ‘寢’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다’류 동사의 통시적 의미 변천의 유형 분석

어휘의 변천과정은 크게 파생성 의미 변천과 교체성 의미 변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파생성 의미 변천은 본래의미를 기점으로 새로운 용법과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미와 파생의미가 함께 공존하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체성 의미 변천은 단어의 새로운 의미가 본래의미를 대체하고 주요의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본래의미는 점차 약화되거나 심지어 소실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자다’류 동사의 통시적 의미 변천과정은 대략 이 두 가지 유형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 파생성 의미 변천

파생성 의미 변천은 기본적으로 聯想이라는 인간의 심리 작용에 기인하여 의미를 확대시키는데, 소위 연상을 통한 파생이란 본래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더

17) 方金華, 上同, 16쪽.

18) 李慧, 「漢語“睡眠”、“清醒”義常用動詞的演變研究」, 武漢, 湖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년, 54~55쪽.

심화된 상태를 연상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자다'류 동사 중에서는 '睡'와 '眠'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睡'는 본래의미인 '앉은 채로 졸다'의 뜻을 기점으로 심하게 졸다가 결국 잠이 드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상 작용을 통해 '睡'의 본래의미인 '졸다'에서 '자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또한 '眠'의 경우, 본래의미는 '눈을 감다'로 '자다'의 뜻과 관계가 없었는데, 사람이 눈을 감은 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연상 작용에 의해서 '眠'에 '자다'라는 파생의미가 생겼다.

(2) 교체성 의미 변천

교체성 의미 변천은 일반적으로 옛 범주의 소실, 새로운 범주의 생성, 동일 범주 안에서의 구성요소의 변화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세 번째 유형이 교체성 의미 변천의 주류이자 常用詞 의미변천 연구의 핵심이다.¹⁹⁾

'자다'류 동사 중에서 '臥'는 옛 범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범주가 생성된 두 가지 유형의 예에 속한다. '臥'의 본래의미는 '책상에 엎드리거나 기대어 쉬다'이다. 엎드려 쉬다 보면 잠이 들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또한 잠을 자는 행위동작이 진행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누워 있게 되므로, 다시 '눕다'의 뜻이 파생되었고, 여기에서 또 누워 있는 장소 또는 잠자는 곳의 의미가 생겨났다. 현대중국어에서는 '눕다'의 의미를 주로 나타내고, 심지어 '겹질을 간 계란을 끓는 물에서 삶다'라는 의미가 생겼다. 아울러 의미 변천과정에서 최초로 '책상에 기대어 쉬다'를 뜻하는 본래의미가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또한 2절의 통시적 의미 변천과정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현대중국어에서 '寐', '寢', '臥'는 이미 단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단독으로 '자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며, 단지 형태소로서의 역할로만 남아 있다.²⁰⁾ 그러므로 이 동사들의 의미변천 또한 옛 범주가 소실되고 새 범주가 생겨난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19) 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9년, 26쪽.

20) 李慧, 「漢語“睡眠”、“清醒”義常用動詞的演變研究」, 武漢, 湖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년, 56~57쪽.

마지막으로 ‘자다’의 뜻을 나타내는 유의어 의미장에서 시기별로 이 의미장의 구성요소인 5개의 동사들이 의미체계 속에서 갖는 지위가 각기 다르다. 선진시기에 ‘자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된 常用詞는 ‘寢’이다. 戰國후기부터는 ‘臥’가 점차 ‘寢’의 위치를 대신하며 우위를 차지하다가 兩漢시기에는 ‘자다’의 의미를 대표하는 핵심동사가 되었다. 이후 삼국시기에는 ‘臥’, ‘眠’, ‘睡’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睡’는 항상 부차적인 위치에 있었다. 晉代 이후에는 ‘眠’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하여 남북조후기에는 기본적으로 ‘臥’를 대체하면서 구어와 서면어 모두 ‘眠’이 핵심동사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唐代부터 근대중국어 단계에서는 또 ‘睡’가 ‘眠’의 위치를 대체하고, 이후 현대중국어에서는 ‘자다’의 뜻을 나타내는 유일한 구어 어휘로 존재한다.²¹⁾ ‘寐’는 전체적인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우위를 점하거나 핵심동사가 되지는 못하였다.

요컨대, ‘자다’류 동사들은 중국어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교체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 의미 변화를 겪었으며, 또한 각 시기별로 핵심동사가 교체되는 변화가 있었다. 시기별로 핵심동사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寐’를 제외한 나머지 ‘寢’, ‘臥’, ‘眠’, ‘睡’의 선진부터 명청시기까지 교체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寢’(先秦) → ‘臥’(兩漢) → ‘眠’(魏晉南北朝) → ‘睡’(中古~現代)

4.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자다’류 동사 ‘睡’, ‘寐’, ‘臥’, ‘寢’, ‘眠’에 대한 시기별 용례 분석을 통해 통시적 의미 변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이 유의어군의 同中有異, 즉 차이점을 분석하여 수면상태와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동시에 ‘자다’류 동

21) 汪維輝, 『東漢-隋常用詞演變研究』,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0년, 156~157쪽.

사 '睡', '寐', '臥', '寢', '眠'의 통시적 의미 변천과정의 유형 및 시대별 핵심동사의 교체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각 동사들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睡'의 본래의미는 '앉은 채로 졸다'이고, 이로부터 파생된 '자다'의 뜻은 선진 시기에 이미 출현하여 일정기간 본래의미와 함께 공존하였다. 본래의미는 唐代 이후 그 출현빈도수가 점차 감소하여 대략 宋代에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唐代부터 파생의미가 주요의미의 지위를 대체하며 '睡'의 통칭이 되었고, 현대중국어에서는 '자다'의 뜻을 나타내는 유일한 구어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睡'의 수면상태는 '瞌睡'상태로 宋代까지 사용되었으며, 五代 이후에 이음 절어 '瞌睡'의 형태가 출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침구 없이 앉아서 자는 수면방식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다'라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자는 방식을 나타내며, 파생성 의미 변천과정을 보이고 있다.

2. '寢'의 본래 의미는 '눕다'로 선진시기에 '자다'의 뜻이 파생되었고, '자다'류 동사 중에서 선진시기를 대표하는 동사가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시기에 본래의미와 파생의미가 함께 사용되다가 明清 시기에 본래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국어에서는 단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형태소로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寢'은 잠자는 동작행위만을 나타내는 '睡覺'의 수면상태를 나타내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동사이며, 교체성 의미 변천의 특징을 보인다.

3. '寐'의 본래의미인 '자다'는 선진시기부터 명청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현대중국어에서는 고대중국어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형태소로서만 사용되고 있다. 고대 중국어에서 '寐'는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며, '不' 또는 '假'와 連用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다. 또한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睡着'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누워서 자는 방식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 변천에 있어서 교체성 의미 변천 과정을 보인다.

4. '臥'의 본래의미는 '책상에 기대어 쉬다'이고, 선진시기에 '자다'의 뜻이 파생되어 일정기간 병용되었으나, 이후 兩漢시기부터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이 보편

적으로 사용되면서 '자다'류 동사를 대표하는 핵심동사가 되었다. 그러나 대략 중 고시기부터는 '자다'의 뜻에서 파생된 '눅다'의 의미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며 우위를 점하였고, 이 추세가 반영되어 현대중국어에서는 '자다'의 의미항목이 사라지고 '눅다'의 의미항목만 남게 되었으며, 또한 형태소로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臥'는 잠자는 동작행위만을 나타내는 '睡覺'의 수면상태를 나타내며, 책상에 엎드려 자는 방식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의미 변천에 있어서 교체성 의미 변천의 특징을 나타낸다.

5. '眠'의 '본래의미'는 '눈을 감다'이고, 선진시기에 본래의미에서 '자다'의 뜻이 파생되었다. '眠'은 대략 晉代부터 출현회수가 급증하면서 '자다'류 동사 중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특히 남북조 후기에 '臥'를 대체하면서 핵심동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는 본래의미가 소실되고 파생의미인 '자다'의 뜻이 주요 의미항목이 되었다. '眠'의 수면상태는 잠자는 동작행위만을 나타내는 '睡覺'의 단계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후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睡着'의 상태를 잠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자다'류 동사들의 통시적 의미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편폭의 제한으로 '자다'류 동사에 대한 통시적 의미 변천 고찰로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깨다'류 동사의 통시적 의미 변천 및 차이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자다'류 동사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큰 틀에서의 '睡覺'류 동사의 의미체계 특징을 귀납하는 연구를 기약하겠다.

〈參考文獻〉

- 王力, 『古代漢語』第3冊, 北京, 中華書局, 1995년.
 王政白, 『古漢語同義詞辨析』, 合肥, 黃山書社, 1992년.
 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9년.
 汪維輝, 『東漢-隋常用詞演變研究』,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0년.
 王云路, 「中古常用詞研究漫談」, 『詞彙訓詁論稿』,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2

년.

方金華, 「從古今睡眠方式的變化看漢語詞義系統的動態平衡」, 『台州學院學報』 第1期, 2012년.

劉新春, 「睡覺類動詞的歷史演變研究」,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3년.

李慧, 「漢語“睡眠”、“清醒”義常用動詞的演變研究」, 武漢, 湖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년.

유현아, 「征, 伐, 侵, 襲, 討의 의미특징 비교」,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년.

<Abstract>

A Study on the Diachronic Evolution of Verbs Relevant to Sleep

Yu, Hyun-A

Common words are the core of lexical system.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continuity of language and providing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new words. In a certain sense, the change of the common words is the deep, essential change of the whole lexical system. The history of Chinese lexemes is the science of studying the diachronic change of Chinese lexemes. It should make research into the changes of the important common words in the lexical system. Without researching into the history of common words, one could not have an outlook of the lexis of the period. Precisely, he will lose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lexis history of different periods.

Verbs are the most abundant and most complex words in Chinese.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common verbs. The study of common verbs allows us to better understand verbs and Chinese.

This study selects five commonly used verbs meaning '睡(shui)', '寐(mei)', '卧(wo)', '寝(qin)', '眠(mian) as the research objects.

Verbs signifying sleep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people's daily life. Ever since the appearance of the human being in the world, sleep is an essential inactivity

and basic part of their life. The replacement of the verbs signifying sleep profiled among the changes of lexis. Every glosseme of the verb signifying sleep experienced a course of changing. In light of the historical documents, the paper makes an investigation on the changes of the verbs signifying sleep throughout the historical periods, and analyses the features and the causes of these changes.

Key words: Sleep, diachronic evolution, Common verbs, literal sense, Extended meaning

이 논문은 2020년 4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5월 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